

2000년 연도문제 대응현황

2000문제 추진 목표는 현행 유지업무를 완벽히 유지, 운영하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단순 2000년 문제해결만을 위한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문제는 '98년이전에 완료하는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윤 준 호 삼성SDS 생보IS실 팀장

국내 삼성생명의 2000년 문제 대응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삼성생명은 지난 '96년 6월 2000년 문제를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면서 실제적인 대응전략이 시작이 되었다.

'96년 10월까지의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기본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시스템 환경을 조사, 반영하여 2000년 문제를 추진할 전체 계획안이 세워졌다.

'96년 11월에는 2000년 문제를 삼성생명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였다. 문제의 본질이 뭘지 앞으로 해야 할 규모와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바로 임원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였다. '97년 1월에는 2000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실무자들에게 여러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므로써 본격적인 시작을 하였다.

'97년 2월에는 2000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척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척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유지, 보수하면서 추진관리를 하고 있다. '97년 6월 현재 1단계 수정작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추진조직 및 인력부문은 기존조직의 정보시스템 실장이 추진조직의 책임자가 되고 신보협T/F팀장 및

각 팀장이 문제의 책임 관리자가 되고 각팀의 여러 파트장이 실무책임자가 되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인력부문은 현재 정규인력이 176명이고 협력업체가 146으로 총 322명으로 인력구성을 보면 호스트가 117명, 유닉스가 51명으로 인력구성이 되어 있다.

전산자원을 보면 첫째 하드웨어 부문은 메인 프레임이 2대가 있고, 유닉스 서버가 191대가 있고, NT 서버가 620대가 있는데 PC가 17,383대가 있고, 기타 장비가 43,374대가 있다. 이 하드웨어쪽에는 모든 것을 점검해서 2000년문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쪽은 파일이 3,082로 호스트 쪽이 2700개, CICS가 8000, MAP가 7000정도로 BATCH프로그램이 11,330으로 합계 27,072정도가 된다. 라인으로는 9,800,000정도 이다.

삼성생명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특징은 전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였다.

외국에 아웃소싱을 주더라도 우리 인력이 반드시 개발에 참여를 하였다. 전 프로그램 소스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변경, 유지 관리하고 있다. 호스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96년부터 신보협 시스

템을 본격 개발하고 있고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분량이 어느정도 추진 중이다.

2000문제 추진 목표는 현행 유지업무를 완벽히 유지, 운영하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단순 2000년 문제해결만을 위한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문제는

'98년이전에 완료하는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2000년 문제해결의 5대 처리원칙은 첫째, 변환 방식은 2자리에서 4자리 확장을 했다. 확장기법은 데이터 정렬작업이 가능하고 온라인에 영향이 없으며, 로직이 단순하여서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그에 따라 변환작업이 용이하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

<표 1> 부문별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메인프레임 /서버	OS 버전업 하드디스크 증설
시스템 SW	CICS V4.1 업그레이드 COBOL 컴파일러 업그레이드
과 일	연도코드 4자리 확장
프로그램	COBOL의 MVS전환(PL/I 미정)
화면 /인쇄물	고객용 및 임직원용 구분처리
PC	OA 패키지 버전업

<표 2> 부문별 세부처리지침

구 분	지 침
과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연도코드 4자리 확장 : YY → CCYY - DATA 정렬, 퍼포먼스, 유지보수 편의성 (Logic의 단순화)
프 로 그 램	COB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CS : 전 프로그램 COBOL의 MVS 전환 - 시스템 효율화 ○ BATCH : 필요시에만 COBOL의 MVS 전환
	P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지침 미확정 - 업그레이드 여부 미정 - 지원 툴 부족, 시스템 부하 ○ 대체 언어 검토팀 구성 : 4GL ○ 대체 4GL 없을 경우 PL/I 업그레이드
화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용 : PC통신, 인터넷 등 - 입력/출력항목 모두 4자리 연도코드 사용 ○ 임직원용 - 입력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용 : 2자리 사용 · 조회용 : 4자리 사용 - 출력항목 : 2자리 출력을 원칙으로 함
인 쇄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용 : 4자리 사용 ○ 사내용 : 2자리 사용

인 해결방법이다.

변환작업의 주체는 풍부한 COBOL, PL/1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완벽한 시스템 및 개발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자체요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요시에는 외주 인력을 이용한다.

변환작업의 진척관리는 시스템을 개발, 이용하여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2000년문제 해결의 5대 처리 원칙은 '96년 이후의 모든 변경업무 및 신규시스템 개발은 반드시 2000년 문제해결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계약에서 지금까지의 모든상황을 완벽하게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2000년 가상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1년동안 추진해온 하드웨어의 메인프레임, 서버, N/W장비, 기타 OA장비는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본다. 프로그램 및 파일부분은 호스트의 파일이 총 2771본수인데 그중에서 25%정도가 완료되었다. 프로그램은 20%정도 완료되었고, 서버에 관련된 것은 100% 완료되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96년 6월부터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계획, 수립하고 교육도 하면서 6월까지 유지해왔다.

1차 수정단계로는 '97년 3월에서 7월까지로 자팀내 사용파일 위주의 연도토드를 확장하고 '97년 7월에 COBOL FOR MVS를 설치하고, PL/1에 대한 방향을 확정함에 따라서 LANGUAGE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단 2000년 문제 해결만을 위한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다.

2단계로는 '97년 8월에서 12월까지로 타팀 관련 파일위주로 연도코드를 확장하고 전 CICS 프로그램을 COBOL FOR MVS로 전환, 그리고 주요원부 및 MASTER FILE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단계도 역시 2000년 문제 해결만을 위한 변경은 하지 않는다.

'98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장 핵심인 원부 및 주요 마스터파일을 변경할것이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기존적인 원부가 바

뀌지 않아서 그 밑에 관련된 업무가 잘 바뀌지 않아서이다.

개인원부의 경우는 4월 18~19일, 단체원부의 경우에는 6월 20~21일로 날짜까지 확정해놓고 시간이 나는 대로 확인중이다. 기타 연도코드 미확장 업무의 전파일을 수정하고 모든 프로그램 연도부분 4자리를 수정할 계획이다.

'99년에는 제2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현재와 2000년 이후의 반복테스트를 하고 1개지점 데이터로 모든 업무를 가상운영할 수 있도록 2000년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미흡하고 현업부서의 홍보 또한 미흡하다. 납기준수를 위해 변경 및 개선업무에 대해 2000년 문제해결 업무를 적용 안하고 실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랭귀지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문제를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다. 단순히 2000문제하고 시스템에 관련된 업무개선을 합한 '98년도의 인력 및 예산부분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97년 9월안에 세부일정의 재수립 및 추가인력의 선확보를 통해서 변경 대상업무를 재분석하고 '99년 안에 자원을 확보하여 제2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나 변경시 연도표기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QA를 통하여 준수여부를 점검할 제도를 만들 것이다.

1년동안 추진해온 종합소감으로 이 2000년문제는 계속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바뀌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1년반이나 2년이 남았다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빨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제만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말고 2000년 문제를 현업동참을 유도하여 현업업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COBOL과 PL/1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단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변경대상 규모의 파악을 통한 필요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하겠다. ●